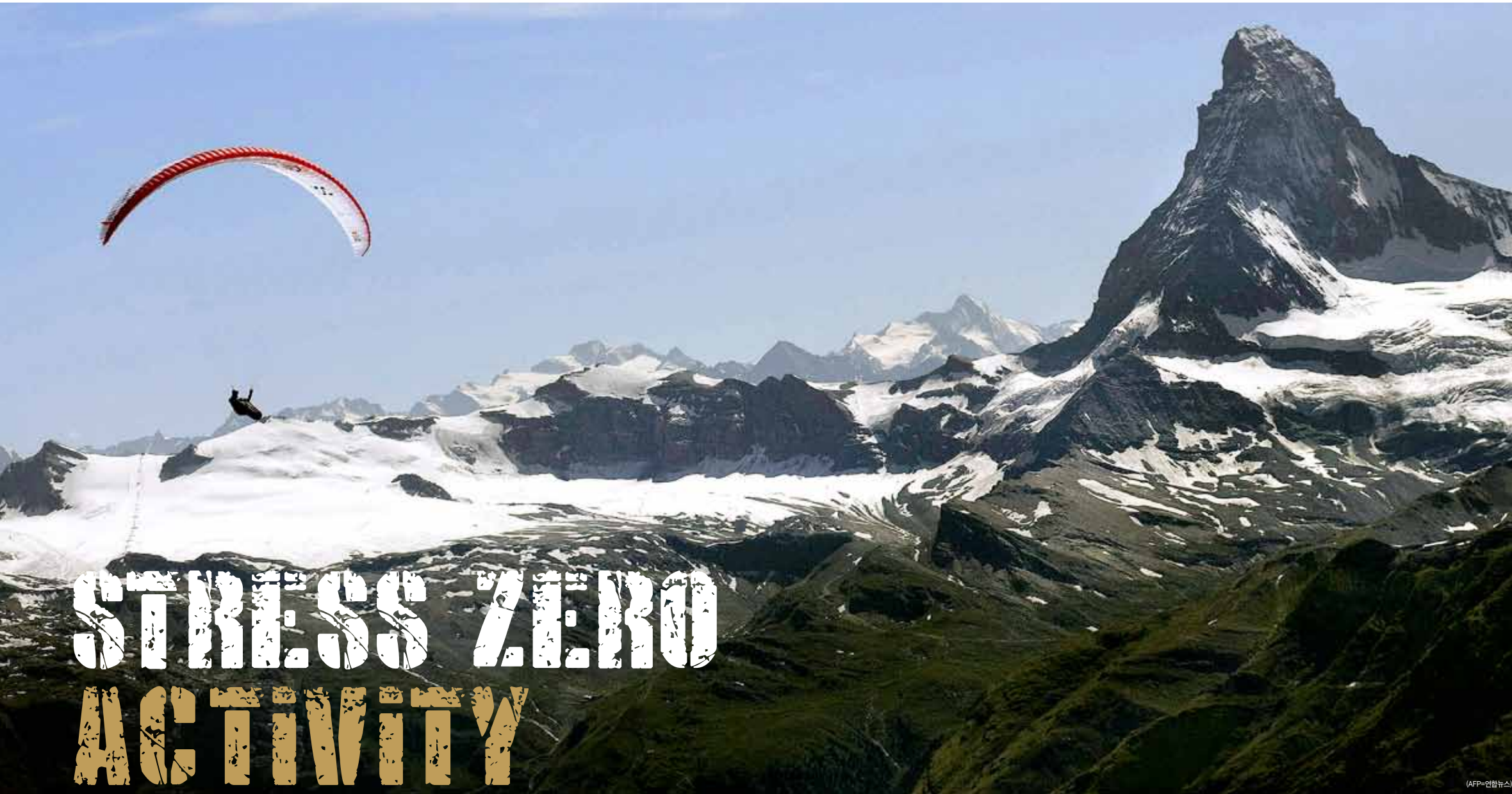


그곳에 가면 꼭 도전해 볼 만한 스트레스 제로 액티비티!



해외여행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액티비티가 있다. 하늘을 날면서 파노라마 설봉을 감상하는 알프스의 패러글라이딩, 사륜구동 차량을 타고 즐기는 아라비아사막의 사파리, 울창한 밀림 속에서 타잔이 되어 보는 중남미의 쥘 라인처럼 현지의 고유한 환경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액티비티를 소개한다. 글 장성배 기자 · 사진 연합뉴스 DB



Switzerland
Paragliding



Turkey
Hot-air Balloon



Qatar
Desert Safari



Guam
Skydiving



Macau
Skywalk X

사진 / 맨립 스카이다이브 콰 제국

사진 / 타카시와키 제국

스위스 패러글라이딩 Switzerland Paragliding

융프라우, 마터호른, 쉴트호른 등 알프스의 봉우리들은 연중 만년설과 빙하를 머리에 이고 있다. 패러글라이딩은 알프스 봉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감상하는 길로 통한다.

스위스 중부에 위치한 인터라켄, 그린델발트, 라우터부르넨은 패러글라이딩의 최적지로 꼽힌다. 융프라우, 뮌히, 아이거 등 알프스 산맥의 고산들이 웅장하게 펼쳐져 파노라마 절경을 만끽할 수 있다. 기류가 안정적이어서 어느 계절에나 패러글라이딩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인터라켄에서의 패러글라이딩 체험은 회에 거리에 있는 '아웃도어 인터라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차를 타고 해발 800m에 위치한 베아텐베르크까지 올라가 진행한다.

비행은 안전을 위한 유의 사항과 기본적인 장비 사용법을 익힌 후 시작된다. 교관과 함께하는 탠덤(Tandem) 비행의 경우 대형 캐노피(날개) 외에 교관과 체험자가 비상용 낙하산을 따로 메고 이륙한다. 경사면을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땅에서 발이 떨어지고 몸이 등실 솟구친다. 중력을 벗어나 바람에 몸을 맡기면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탠덤 비행은 교관이 하네스로 연결된 체험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교관은 체험자가 알프스를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사면비행(Ridge Soaring)을 하면서 하늘 위를 선회한다. 풍향과 풍속, 고도를 계속 확인하며 낙하산 줄을 당기거나 푼다. 마치 폭신한 소파에 앉아 하늘을 나는 기분이다.

Info

인터라켄 패러글라이딩 체험비는 비행 시간(15~30분)에 따라 170~260스위스프랑이다. 그린델발트와 라우터부르넨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진행하는 패러글라이딩 융프라우(www.paragliding-jungfrau.ch)의 경우 체험 시간과 비용은 15~50분, 160~280스위스프랑이다.

터키 카파도키아 열기구 Turkey Hot-air Balloon

소아시아 중앙에 자리한 카파도키아는 터키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관광지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풍경을 품고 있다. 화산 분출물이 쌓여 굳은 응회암 지대가 오랜 세월 풍화를 겪으면서 고유한 지형이 만들어졌다. 버섯, 죽순 모양의 기암괴석과 암봉이 산재해 SF 영화에 등장하는 외계 행성을 연상시킨다.

열기구는 카파도키아를 감상하는 최상의 방법으로 통한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 신묘막측한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열기구 투어는 주로 새벽에 진행된다. 지면이 태양열을 많이 받는 낮에는 대기가 뜨거워져 곳곳에서 상승기류가 발생해 비행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동트기 전 열기구에 올라 최고 600m 상공에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일출을 맞는다.

어둑어둑한 새벽, 열기구 이륙장에 도착한 관광객들은 거대한 구피(Envelope)에 바람을 넣는 광경도 볼 수 있다. 땅에 펼쳐져 있던 구피가 부풀어 올라 30m 안팎의 높이로 세워지면 카파도키아 열기구 투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열기구 바구니(Basket)에는 대개 10~20명이 탑승한다. 파일럿이 바구니와 구피 사이에 놓인 버너의 연료 레버를 당기면 불기둥이 일면서 열기구가 하늘로 떠오른다.

비행 코스는 그날의 기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느 하늘에서나 카파도키아는 동화 속 요정들이 사는 마을처럼 다가온다. 바위산 암굴은 작은 창문처럼, 원추형 암봉은 굴뚝처럼 보인다.

Info

동화마을 감상은 업체에 따라 비행 시간이 다르다. 카파도키아 벌룬(www.cappadociaballoon.org)의 경우 스탠더드(60분), 디럭스(90분), VIP(90분, 전용 열기구 탑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착륙 후에는 샴페인이 곁들여진 축하 파티가 마련되고 체험 증명서가 발급된다.



카타르 사막 사파리 Qatar Desert Safari



사막 사파리 참가자들은 차량 바퀴가 모래에 빠지는 난관을 넘고 사막 유목민 문화를 체험한다.

카타르 수도 도하는 카타르항공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최근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카타르항공은 현재 도하를 중심으로 아시아, 중동, 유럽, 북·남미, 아프리카의 127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다.

허브 공항으로 떠오른 도하를 방문한다면 꼭 경험해야 할 액티비티가 있다. 사륜구동 차량을 타고 광활한 모래언덕을 질주하고 사막 유목민의 생활을 접해 보는 사막 사파리(Desert Safari)이다.

카타르 사막 사파리는 도하 남쪽에서 진행된다. 40~50도에 달하는 한낮의 지열을 감당할 수 있는 사막용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을 타고 출발한다. 도하에서 이어진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도착하면 우선 타이어의 공기압을 낮춘다. 접지면을 최대한 넓혀 바퀴가 모래 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선도차가 준비를 마치고 모래밭 안으로 진입하면 적게는 서너 대, 많게는 예닐곱 대의 차량이 뒤를 쫓는다. 모래밭이라고 해서 저속 주행을 예상한다면 오산이다. 평지 사막에서의 속도가 시속 120km를 넘나든다. 사륜구동 차량들이 아득한 지평선을 향해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레이스를 펼친다. 모래밭이 끝없이 이어진 비포장 활주로를 달리는 듯하다. 직접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속도감을 만끽할 수 있다.

구름 사막에선 또 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다. 차량이 가파른 모래언덕(Sand Dune)을 오르내리면 마치 격랑 위에서 항해를 하는 듯하다. 모래바람이 파도처럼 차창에 들이치고, 요동치는 차 안에서 관광객들의 괴성과 환호가 이어진다. 안전벨트를 꼭 조이지 않으면 몸이 성치 않을 정도로 출렁임이 심하다. 간혹 차량 바퀴가 모래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게 되면 재빨리 다른 차량에 로프를 연결해 빠져나온다.

사막 주행을 마치면 아라비아 유목민 베두인 문화 체험이 기다린다. 바다와 사막이 어우러지는 지점에 세운 천막 캠프에서 바비큐 뷔페를 맛보고 매사냥 시연, 벨리댄스 등을 감상하게 된다. 베두인 메뉴에는 바비큐와 함께 어른 엄지만 한 대추야자 열매와 설탕이 듬뿍 들어간 커피가 빠지지 않는다. 사막 사파리 관광객을 위한 캠프장에는 자가발전기, 샤워시설, 수세식 화장실 등이 갖춰져 있어 일몰 이후에도 일정이 이어진다. 양탄자에 앉아 악사들의 연주와 벨리댄스를 감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늘에 뭉뚱이 가득한 '아라비안 나이트'가 펼쳐진다.



Info

카타르 어드벤처(www.qataradventure.com) 등 사막 사파리 전문 업체들이 도하에서 성업 중이다.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며 4시간(오전, 오후), 당일치기(중식, 석식 포함), 1박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멕시코 셀바티카 짚 라인 Mexico Zip Line

멕시코 남부 유카탄 반도의 끄트머리에 자리한 칸쿤(Cancun)은 북미와 유럽 은퇴자들의 버킷 리스트 여행지 중 하나다. 세계적인 명성의 호텔과 리조트가 코발트빛 해변을 따라 조성돼 있다.

칸쿤에선 휴양 외에 특별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칸쿤 남서쪽에 위치한 셀바티카(www.selvatica.com.mx)의 짚 라인(Zip Line)이다. 셀바티카는 세계 최대 여행정보 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가 멕시코 최고의 어드벤처 파크로 선정한 곳이다. 북미에서 가장 긴 짚 라인이 설치돼 있다.

짚 라인은 헬멧을 쓰고 하네스, 자일, 카라비너 등을 갖추고 울창한 열대우림 속에서 이뤄진다. 신병훈련소 유격훈련장에서처럼 교관과 조교의 시범을 보면서 사전교육을 받은 이후 아름답디 열대 나무들을 연결한 케이블에 의지해 갖가지 모험을 즐기는 방식이다. 12개 코스를 모두 체험하려면 1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서로 높이가 다른 지점에 케이블을 연결한 코스에선 짜릿한 속도감을

맛볼 수 있다. 또 케이블이 수평으로 연결된 곳에서는 장갑 낀 손으로 쇠줄을 잡아당기며 이동해야 한다. 어느 코스에서나 질푸른 초록의 정글이 발아래 펼쳐져 있어 원시의 숲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다.

짚 라인 체험 이후에는 군용 트럭을 개조한 차량을 타고 열대우림 비포장 길을 달려 세노테(Cenote)로 이동한다. 세노테는 석회암 지형이 침식, 침하하면서 곳곳에 형성된 물웅덩이를 말한다. 수영과 다이빙 장소로 알맞다. 짚 라인으로 온몸이 땀으로 범벅된 관광객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세노테를 향해 몸을 던진다. 나무 기둥에 묶어 놓은 밧줄을 잡고 점프를 하면 다이빙의 묘미가 배가된다. 셀바티카는 칸쿤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남하하다 푸에르토 모렐로스(Puerto Morelos)를 지나자마자 내륙으로 우회전해 약 19km를 달리면 닿는다.



Info

셀바티카 짚 라인 프로그램은 9시, 10시 30분, 12시, 13시 30분에 각각 출발하며 총 3시간 30분이 소요된다. 1회 체험비는 성인 99달러, 만 5~12세 49달러(만 3~4세 무료)이다. 체험비에는 점심과 호텔-셀바티카 교통편이 포함돼 있다.

괌 스카이다이빙 Guam Skydiving

괌에서 체험하는 스카이다이빙은 관광객과 교관이 몸을 연결하고 낙하하는 탠덤 방식이다. 물론 1달가량 교육을 받으면 혼자 뛰어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탠덤 스카이다이빙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몸무게는 100kg 미만이어야 한다. 만약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을 즐긴 직후라면 12시간(전문 다이버는 24시간)이 지나야 한다.

점프 고도는 개인별로 선택할 수 있는데, 2천m대에서 4천m대까지 폭이 넓다. 점프 고도가 높을수록 자유낙하 시간이 길고 비용은 올라간다.

스카이다이빙용 항공기에는 좌석이 없다. 체험자가 스카이다이빙 전용 수트와 하네스를 갖추고 바닥에 앉으면 교관이 뒤쪽에서 자신의 하네스와 연결한다. 교관은 항공기가

점프 고도에 도착할 때까지 체험자에게 자유낙하 자세를 반복해 교육한다.

점프는 짧은 카운트다운과 함께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항공기 출입구 밖을 내려다보면 간담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지만 일단 뛰어내리면 극한의 짜릿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간다. 자유낙하는 점프 고도에 따라 10여 초에서 1분 동안 지속된다. 두 팔과 두 다리를 활짝 펴 바람의 저항을 온몸으로 느끼며 허공을 질주한다. 1천500m 상공에서 낙하산을 펴기까지 시속 200~300km 속도로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에 황홀한 짜릿함을 만끽하게 된다. 구름 아래 펼쳐진 괌의 푸른 바다와 정글 풍경이 긴장과 두려움을 한순간에 날려 버린다.



Info

탠덤 스카이다이빙 괌(www.skydiveguam.com)의 경우 1회 기본(2천400m에서 점프) 체험비는 298달러다. 점프 고도가 600m 올라갈수록 체험비는 40달러씩 추가된다. 체험비에는 보험료가 포함돼 있다.



사진 / 탠덤 스카이다이빙 괌 제공

마카오 스카이워크 엑스 Macau Skywalk X



2001년 완공된 마카오타워는 높이 338m로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면 마카오 반도와 타이파 섬, 콜로안 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마카오타워에선 4가지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스카이워크 엑스(Skywalk X)이다. 전망대 밖에 설치된 폭 1.8m의 원형 통행로를 따라 걷는 체험으로 233m 고공에서 거센 바람을 맞으며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발아래 풍경을 감상한다.

전망대에선 스카이워크 엑스 외에 스카이점프와 번지점프를 체험할 수 있다. 스카이점프는 시속 75km로 20초 동안 자유낙하하는데 몸에 연결하는 줄의 종류와 묶는 방식이 번지점프와 다르다. 몸이 되튀어 오르지 않으며 한 번 낙하 후 편안하게 착륙한다. 번지점프는 최대 시속 200km로 떨어지는데 줄의 탄성력으로 인해 몸이 되튀면서 4~5회의 자유낙하를 체험하게 된다.

평소에 스파이더맨을 동경했다면 타워 클라이밍(Tower Climb)에도 도전해 볼 만하다. 마카오타워에 설치된 수직 사다리를 타고 전망대에서 타워 꼭대기까지 약 100m를 2시간 동안 오르내리는 액티비티다. Y

Info

마카오타워 액티비티 운영 시간은 주중 11시~19시 30분(금요일은 21시), 주말 10시~21시다. 요금은 스카이워크 엑스 688, 스카이점프 1천888(탠덤 3천488), 번지점프 2천488, 타워 클라이밍 1천888마카오달러이다. www.macautower.com, mo